

## 프랑스어 사전 속 아프리카니즘 : 프랑스 내 아프리카 문화의 확산 양상 분석\*

김민채

(경희대학교 조교수)

###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아프리카 문화의 확장성 및 확산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프랑스어 사전에 포함된 아프리카니즘(africanism), 즉 아프리카 언어에서 유래된 차용어를 분석하여 아프리카 문화가 프랑스 문화 내에 어떻게 도입되고, 확산하며 변형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이를 위해 프랑스어 사전 *Le Petit Robert de la langue française*의 온라인 어원 검색 기능을 사용하여 아프리카니즘을 추출하였고, 추출된 단어를 '도입 과정 및 차용 언어', '차용의 형태, 품사 및 분야', '출현 시기', '특이 사항'의 네 가지 기준에 따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이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유입 양상', '정착 양상', '변형 양상'의 세 단계로 나누어 프랑스 내 아프리카 문화의 확산 양상을 유추하였다. 일련의 작업을 통하여 프랑스의 제1식민제국 후기 및 제2식민제국 초·중기에 프랑스의 영향 아래 놓였던 지역으로부터 활발하게 도입된 프랑스 내 아프리카의 문화가 프랑스와 아프리카의 긴밀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문화에 깊은 영향을 주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임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 프랑스어 사전, 언어 접촉, 차용어, 어휘 차용, 아프리카니즘, 프랑스, 아프리카, 문화 확산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5C2A02086919). 또한, 이 논문은 2023년 6월 30일 열린 학술대회 (2023 KAF-KAAS International Conference <African Dynamics>)의 발표문("African Cultural Diffusion from a Linguistic Point of view")을 수정, 보완하여 발전시킨 것임.

## 1. 서론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어휘 차용(lexical borrowing)은 두 문화권 간 상호 작용의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하는 문화적 행동이다. 어휘 차용은 해당 문화권과 다른 문화권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접촉했으며 두 문화권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서로 무엇인가를 주고받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전제하는데, 이러한 문화 접촉 및 교류의 결과는 차용어(loanword)로 그 실체가 드러난다. Higa(1979:277-278)는 다른 문화권으로부터 단어를 빌리는 행위인 ‘어휘 차용’과 그 결과인 차용어를 통해서 두 문화 간 문화 교류의 방향성 및 내용, 양에 관한 일종의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차용이라는 언어 현상과 그 결과인 차용어에 내포된 주고받는 행위를 분석함으로써 두 문화 간 문화 교류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아프리카 문화의 확장성 및 확산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프랑스어 사전에 포함된 아프리카니즘(africanism), 즉 아프리카 언어에서 유래된 차용어를 분석하여 아프리카 문화가 프랑스 문화 내에 어떻게 도입되고, 확산하며 변형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현대에 이르러 서구의 문명화 사명(civilizing mission)에 따라 멸시되던 아프리카 문화의 주체적인 속성이 부각되면서 아프리카 문화가 세계적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아프리카적 요소를 포함한 문화 콘텐츠의 잦은 출현은 이를 방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프리카 다수의 지역을 식민 지배하였던 프랑스가 피지배자의 문화인 아프리카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작업은 탈식민주의적 관점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

## II. 이론적 배경 및 분석 대상

### 1. 이론적 배경: 언어 접촉, 어휘 차용

본 연구의 이론적 틀은 언어 접촉 이론, 특히 어휘 차용이다. 어휘 차용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 중에서도 차용의 원인, 차용의 방향 및 크기, 차용의 수용 정도에 대한 논의는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문화의 교류와 확산, 변형 문제에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먼저 차용의 원인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자. 어휘 차용을 연구한 학자들(Bouchard 1999, Brunot 1899, Deroy 1956, Hockett 1958)에 따르면, 심리적 차원에서 차용어는 ‘필요에 따른 차용어(necessary loanword)’와 ‘잉여적 차용어(luxury loanword)’의 두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sup>1)</sup> 첫 번째 유형의 차용어는 수용 언어(recipient language)에 부재하여 표현할 수 없는 개념을 지칭하는 데 사용된다. 즉, 수용 언어의 어휘 공백(lexical gaps)을 메우는 목적을 가진다. 두 번째 유형의 차용어는 수용 언어에 해당 개념을 지칭하는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용된 일종의 불필요한 차용어이다. 이러한 차용어는 제공 언어(donor language)와 문화에 대한 존경, 동경과 같은 상징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향이 있으며,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수용 언어 내에서 불필요한 동의어를 생성할 수 있다. 아프리카 기원의 프랑스어 차용어가 이 중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 살펴보는 일은 프랑스에서 아프리카 문화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해석의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다.

다음은 어휘 차용의 방향 및 크기에 관한 문제이다. 문화 접촉으로 인한 교류는 상호적이며, 차용어는 문화 교류의 결과이므로 두 언어에서 모두 서로의 언어에서 유래된 차용어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

1) Hockett(1958:402-407)는 차용의 원인을 선망 및 위신과 관계되는 “prestige motive”, 필요 충족과 관련이 있는 “need-filling motive”, 둘로 구분하였다.

다. 즉, 아프리카 언어에는 프랑스어에서 유래된 단어가 있고 프랑스어에는 아프리카 언어들에서 유래된 단어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주고받는 차용어의 수가 두 언어 간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차용의 사회언어학적 측면을 연구한 Higa(1979)에 따르면 두 문화가 동등하게 지배적이거나 동등하게 종속적일 때 차용은 양방향으로 발생한다. 그러나 두 문화 간에 권력 불균형이 있을 때 차용은 한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진다. 또한, 차용어에서 그러한 수적 차이가 관찰될 때 문화적으로 지배적인 언어가 덜 지배적인 언어에 더 많은 차용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아진다. Bitjaa Kody(2000)도 “지배 언어(*langue majoritaire*)”와 “비지배적 언어(*langue minoritaire*)” 간의 어휘 차용 문제를 다루며, 차용어의 수적 문제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두 문화 간 힘의 크기가 차용어를 통해 드러난다는 것이다. 관념적 차원에서 차용어를 구분하는 일 또한 두 문화의 권력 관계를 드러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Bouchard(1999:32-33)에 따르면 관념적 차원에서 차용어는 그것이 지시하는 대상의 속성에 따라 “물질적 차용어(*emprunt matériel*)”와 “문화적 차용어(*emprunt culturel*)”로 구분이 가능하다. 물질적 차용어는 사물을 지칭하는 것이며, 문화적 차용어는 생활양식, 개념, 관념 등을 지칭하는 것인데, 이러한 방식으로 차용어를 구분하는 일은 두 사회의 교류 대상을 명확하게 하여 문화 교류의 깊이를 가늠할 수 있게 한다. 차용어의 수에 따른 차용의 방향 및 관념적 차원의 차용어의 두 범주에 대한 고려는 모두 아프리카 문화와 프랑스 문화 간의 권력 관계를 예측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차용어의 수용 정도가 있다. 이는 형태적 차원과 의미적 차원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형태적 차원에서 차용어는 초기, 외래어로서 제공 언어의 규칙을 따른다. 그러나 수용 언어에서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발음, 철자 등의 측면이 수용 언어의 규칙에 따라 변경된다(Loubier 2011). 따라서 제공 언어의 발음 및 철자와 같은 형태적 속성을 수용 언어의 속성과 비교함으로써 단어가 수용 언어에 얼마나 깊이

침투하여 해당 문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의미적 차원에서 차용어는 제공 언어의 의미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와 제공 언어의 의미를 넘어서 새로운 의미를 창출해 내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차용어의 정착에 관한 문제로, 파생어 혹은 합성어를 생산하거나 비유적 의미가 추가되는 후자의 경우가 전자보다 정착 정도가 높다. 이 경우 제공 언어의 문화와 수용 언어의 문화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점에서 문화 횡단(transculturation)<sup>2)</sup>의 사례로 볼 수 있다. 프랑스어 내 아프리카니즘의 수용 정도를 분석하는 일은 아프리카 문화의 확산 정도를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 아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진행된다. 첫째, 프랑스어 사전인 *Le Petit Robert de la langue française*(이하 PR)의 온라인 어원 검색 기능을 사용하여 아프리카니즘을 추출한다. 둘째, 추출된 단어를 ‘도입 과정 및 차용 언어’, ‘차용의 형태, 품사 및 분야’, ‘출현 시기’, ‘특이 사항’의 네 가지 기준에 따라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셋째, 프랑스 내 아프리카 문화의 확산 양상을 ‘유입’, ‘정착’, ‘변형’의 세 단계로 나누어 살펴본다.

## 2. 분석 대상: 아프리카니즘

우리의 연구는 총 120개의 아프리카니즘을 분석하는 것에서 시작한다.<sup>3)</sup> 이 단어들은 암하라어, 마그레브 지역 아랍어<sup>4)</sup>, 반투어, 베르베르어, 이집트어, 호텐토트어, 마다가스카르어, 말린케어, 페니키아어, 셴

2) Burke(2024:67)에 의하면, ‘문화 횡단’은 페르난도 오르티스의 용어로 일방향적 특성을 가진 기존의 ‘문화 변용(acculturation)’ 개념에 비하여 문화 교류의 쌍방향적 측면이 강조된 개념이다.

3) 아프리카니즘은 어휘뿐만 아니라 음성, 형태, 통사 등 언어학의 여러 하위 분야와 관계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어휘에 초점을 맞춘다.

4) PR은 어원으로 아랍어(arabe), 스페인 지역 아랍어(arabe d’Espagne), 마그레브 지역 아랍어(arabe maghrébin)를 구분한다.

어, 소말리어, 스와힐리어, 월로프어, 요루바어, 줄루어를 포함한 15개 이상의 아프리카 언어에서 차용되었다.<sup>5)</sup> 여기서 언어의 정확한 수를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 아프리카 지역 언어에서 유래했지만, 어원이 불명확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단어를 발췌한 *PR*<sup>6)</sup>에서 “아프리카 언어 (*langues africaines*)”로 어원 검색된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sanza*’의 어원은 “아프리카 언어에서 유래된 단어(*mot d’une langue africaine*)”로 기록되어 있으며, ‘*harmattan*’의 경우 “가나의 한 언어에서 유래된 단어(*mot d’une langue du Ghana*)”라는 문구가 있다. 즉, 단어가 사용되는 아프리카 지역과 언어를 모두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지역은 식별할 수 있지만 어느 언어에서 유래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모두 “아프리카 언어”로 분류되고 있음을 밝힌다. 아래는 분석 대상이 된 120개 단어를 알파벳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acra, albacore, amazigh, aye-aye, balafon, bamboula, banane, bantou, bérimbau, bissap, bled, bongo, bonobo, boubou, bougnoule, brèle, brick, cachaça, calculer, candomblé, caoua, chaoui, chergui, chikungunya, chimpanzé, chleuh, chouïa, cola, cumin, darbouka, dengue, djellaba, djembé, douar, ébène, filanzane, filao, flouze, gandoura, gerboise, gilet, gnou, gombo, gourbi, harmattan, hysope, ibis, igname, impala, indri, iroko, karité, khobz, kifer, kora, kroumir, kwashiorkor, macache, macoute, mafé, maki, malgache, margouillat, marimba, matabiche, matraque, mechta, médersa, méhari, moujingue, négus, nouba, oasis, okapi, okoumé, ouabaine, peul, pharaon, pili-pili,

5) 사전의 어원 검색을 통해 얻은 각 언어 기원 차용어들의 수는 다음과 같다: 암하라어(1개), 마그레브 지역 아랍어(34개), 반투어(12개), 베르베르어(8개), 이집트어(5개), 호텐토트어(1개), 마다가스카르어(11개), 말린케어(2개), 페니키아어(1개), 쉼어(4개), 소말리어(1개), 스와힐리어(5개), 월로프어(4개), 요루바어(2개), 줄루어(2개), 아프리카 언어(28개). 이 중 한 단어(‘*marimba*’)는 ‘반투어’와 ‘아프리카 언어’ 검색 결과에 모두 등장했다.

6) 우리의 연구에서 *PR*을 선택한 이유는 *PR*이 표준 프랑스어 사전을 대표하는 사전 중 하나인 동시에, 온라인 버전의 어원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potto, pschent, rabane, raphia, ravenala, razzia, rezzou, safari, sagaie, sanza, saphir, séga, sipo, siroco, sloughi, souimanga, suffète, suricate, tadelakt, tamazight, tango, tanrec, tara, tassili, tchapalo, tchitola, tilapia, toubib, tsésé, turco, vaudou, vuvuzéla, walé, wengé, wolof, yohimbehe, youpin(ine), zellige, zizanie, zouave, zoulou.

### III. 프랑스어 사전 속 아프리카니즘 분석

이 장에서는 연구 대상이 된 120개 단어에 관해 확인할 수 있는 사전 내 정보들을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도입 과정, 차용 언어, 차용의 형태, 품사 및 분야, 출현 시기와 기타 특이 사항을 차례로 살펴볼 예정인데, 위 정보들은 단어를 취합한 PR뿐만 아니라, *TLFi*, *Dictionnaire historique de la langue française*, *Dictionnaire des mots d'origine étrangère*에 수록된 내용까지 참고하여 정리하였다.<sup>7)</sup> 제공된 정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단어의 역사적 맥락까지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는 *Dictionnaire historique de la langue française*의 내용을 우선 시하였음을 밝힌다.<sup>8)</sup>

#### 1. 도입 과정 및 차용 언어

도입 과정에 따른 아프리카니즘의 분류는 해당 단어가 아프리카 언어에서 프랑스로 직접 차용되었는지, 다른 언어를 통해 차용되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단어의 도입 과정을 살펴보는 이유는 아프리카 언어에서 프랑스로 직접 유입된 단어와 다른 언어를

7) 분석에 PR 이외의 사전들을 참고한 이유는 PR에 제시된 내용을 검증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이다.

8) *Dictionnaire historique de la langue française*는 역사적 관점에서 950,000개 표제어의 기원을 정리한 특수 사전이다.

거쳐 프랑스로 유입된 단어가 문화 확산의 측면에서 서로 다른 특색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우선, 아프리카 언어에서 프랑스로 직접 유입된 단어의 경우<sup>9)</sup>에는 프랑스와 아프리카 간 직접적인 문화 접촉 및 교류가 전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다른 언어를 거쳐 유입된 단어를 통해서도 프랑스와 아프리카 간의 문화 교류보다는 다른 지역과 프랑스의 문화 교류를 먼저 고려하게 된다. 하지만, 이 경우도 아프리카 문화 확산의 또 다른 방향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분석을 통해 우리는 연구 대상이 된 120개 단어 중 82개의 단어가 아프리카 언어에서 직접 유입된 것이며, 38개 단어가 다른 언어를 통해 프랑스로 유입되었음을 확인했다. 아래의 표는 다른 언어를 통해 프랑스로 유입된 38개 단어에 대한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표1. 다른 언어를 통해 유입된 경우

매개 언어(단어 수(개))	단어
라틴어(12)	cola, cumin, ébène, gerboise, hysope, ibis, oasis, pharaon, saphir, suffète, tilapia, zizanie
영어(10)	bantou, bonobo, chimpanzé, dengue, gnou, gombo, impala, okapi, potto, zoulou
포르투갈어(6)	banane, bérimbau, cachaça, candomblé, igname, matabiche
스페인어(5)	albacore, bongo, gilet, sagaie, tango
크레올어(3)	macoute, séga, vaudou
이탈리아어(2)	négus, siroco

위 표에 제시된 단어들은 아프리카 언어가 아닌 제3의 언어를 통해 프랑스로 유입된 단어들이다. 이 경우, 라틴어, 영어, 스페인어와 포르

9) 아프리카 언어가 아니라도 하더라도 아프리카 언어를 거쳐 프랑스로 유입되었다면 여기에 포함한다. 예를 들어, 아랍어에서 유래된 단어가 아프리카의 한 언어를 거쳐 프랑스에 유입되었다면, 아프리카 언어에서 프랑스로 직접 유입된 단어로 취급한다.



투갈어, 크레올어, 이탈리아어가 매개 언어로 기능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매개 언어는 라틴어이다. 하지만 현재 일상생활에서 사용되지 않는 라틴어가 어떻게 매개 언어로서 기능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사실 이러한 단어는 대부분 18세기에 과학적 명칭을 만들기 위한 목적에서 라틴어 어미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경우가 많다. *PR*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생성되었을 경우, “과학적 라틴어(Latin scientifique)”<sup>10)</sup>라는 표지를 사용하여 나타내고 있다. 이때 단어는 일반적으로 자연 과학에서 식물과 동물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는데, 예를 들어 ‘tilapia’는 식용 민물고기의 일종으로 물고기를 의미하는 츠와나어(Tswana) ‘thiape’에 라틴어 어미가 붙어 만들어졌다.

영어를 매개 언어로 가지는 경우도 10건으로 파악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okapi’를 들 수 있는데, Rey(2019:2432)에 따르면 이 단어는 서아프리카의 반투어(Bantu) 기원으로 1900년 영국의 탐험가 해리 존스턴(Harry Johnston)에 의해 영어에 도입, 이후 프랑스어로 유입되었다. 영국 영어가 아닌 카리브해에서 사용되는 영어를 매개로 유입된 단어도 존재하는데, ‘gombo’가 그 예이다. 이 단어는 앙골라 지역의 반투어가 노예무역 시기 카리브해로 이동하여 영어에 유입되었고, 이후 대서양을 다시 건너 프랑스어에 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Rey 2019:1592).

다음으로 스페인어(5건)와 포르투갈어(6건)가 있다. 이는 유럽의 스페인어, 포르투갈어와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대륙에서 사용되는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지역 변이어를 모두 포함한다. 예를 들어, ‘sagaie’는 베르베르어에서 아랍어로, 이후 유럽의 스페인어로부터 프랑스어로 차용된 경우(Rey 2019:3349)인 반면, ‘cachaça’는 아프리카 언어가 대서양을 건너 후 브라질에서 사용되는 포르투갈어를 통해 프랑스어에 다시 도입된 예이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사용되는 포르투갈어가 기원인 단어도 존재하는데, 바로 ‘matabiche’가 그것이다. 포르투갈어로 ‘브렌디’를 뜻

10) 이를 “박물학자들의 라틴어(latin des naturalistes)”라고 명명하는 학자들도 있다. (Walter 2005 참조.)

하던 이 단어는 앙골라 지역으로 가서 ‘팁’을 의미하게 되었고, 이후 이 의미로 프랑스어로 차용된다(Rey 2019:2133).

크레올어<sup>11)</sup>를 통해 프랑스어에 유입된 단어도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반투어 단어인 ‘makout’에서 파생된 단어인 ‘macoute’를 들 수 있다. PR과 Rey(2019)에 따르면, 이 단어는 원래 반투어로 ‘천으로 된 자루’를 의미했다. 하지만 아이티로 옮겨가면서 아이들이 두려워하는 큰 자루를 든 노인을 지칭하게 되었고, 이후 1971년 프랑수아 뒤발리에(François Duvalier)가 아이티에서 창설한 준군사 조직원을 ‘Tonton macoute’ 또는 간단히 ‘macoute’로 줄여 부르면서 프랑스어에 도입되었다.

마지막으로 이탈리아어를 통해 유입된 경우가 있다. ‘Négus’와 ‘siroco’ 두 단어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중 ‘négus’는 이탈리아어로 쓰인 서적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프랑스어에 유입되었다고 알려져 있다(Rey 2019:2337).

이제, 매개 언어 없이 아프리카 언어에서 프랑스어로 직접 차용된 아프리카니즘을 살펴보자. 아래의 표는 이에 해당하는 71개 단어를 언어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sup>12)</sup> 특히 언어를 어족<sup>13)</sup>에 따라 분류한 결과 단어들은 아프로-아시아어족(아랍어, 베르베르어, 이집트어, 소말리어), 니제르-콩고어족(반투어, 요루바어, 아칸어, 판티어, 말린케어, 만데어, 밤바라어, 스와힐리어, 월로프어, 줄루어)<sup>14)</sup>, 오스트로-네시아어족(마다가스카르어)<sup>15)</sup>에 속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1) 여기서 언급되는 크레올어는 카리브해 지역에서 사용되는 크레올어이다.

12) 언어 정보 없이 “아프리카 언어” 표지가 붙은 11개 단어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제외된 11개 단어는 다음과 같다: ‘margouillat’, ‘okoumé’, ‘peul’, ‘sanza’, ‘sipo’, ‘suricate’, ‘tara’, ‘tchapalo’, ‘tchitola’, ‘walé’, ‘wengé’. 이 중 지역 정보가 제시된 단어는 ‘okoumé’(가봉), ‘sipo’(코트디부아르), ‘suricate’(아프리카 남부), ‘tchapalo’(베냉, 부르키나파소), ‘wengé’(콩고)이다.

13) 아프리카 언어의 어족에 따른 분류는 조지프 그린버그(Joseph H. Greenberg)의 분류를 따른다. 그린버그는 아프리카 언어를 니제르-코르도판, 아프로-아시아, 코이산, nil로-사하라어족의 네 범주로 분류했다. 이 중, ‘니제르-코르도판’어족은 현재 ‘니제르-콩고’어족으로 불린다. (Bonvini 1999, Mbolo 2010 참조.)

14) 밤바라어와 말린케어는 만데어파(Mandé)에 속하며, 아칸어와 판티어는 크와어군(Kwa)에 속하는 언어이다. (Bonvini 1999 참조.)

표2. 아프리카 언어에서 직접 유입된 경우

어족	언어(단어 수(개))	단어
아프로- 아시아어(39)	아랍어(30)	bled, brèle, brick, calculer, caoua, chergui, chouïa, darbouka, djellaba, douar, flouze, gandoura, gourbi, khobz, kifer, kroumir, macache, matraque, mechta, médersa, méhari, moujingue, nouba, razzia, rezzou, sloughi, toubib, turco, youpin(ine), zellige
	베르베르어(7)	amazigh, chaoui, chleuh, tadelakt, tamazight, tassili, zouave
	이집트어(1)	pschent
	소말리어(1)	ouabaïne
니제르- 콩고어(21)	월로프어(5)	bissap, bougnoule, karité, mafé, wolof
	반투어(4)	bamboula, marimba, tsétsé, yohimbehe
	스와힐리어(3)	chikungunya, pili-pili, safari
	요루바어(2)	acra, iroko
	말린케어(2)	balafon, boubou
	만데어(1)	kora
	밤바라어(1)	djembé
	아칸어(1)	kwashiorkor
	판티어(1)	harmattan
줄루어(1)	vuvuzéla	
오스트로- 네시아어(11)	마다가스카르어(11)	aye-aye, filanzane, filao, indri, maki, malgache, rabane, raphia, ravenala, souimanga, tanrec

위 표에 제시된 정보를 통해, 분석 대상이 된 단어들은 북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 인도양 지역에서 직접 유입된 경우가 많다는 것을 확인할

15) 마다가스카르어가 속하는 오스트로-네시아어족은 마다가스카르를 비롯한 태평양,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사용되는 언어들을 포함한다. (Bonvini 1999 참조.)

수 있다.<sup>16)</sup> 국가로 보면 북아프리카의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서아프리카의 가봉, 기니, 말리, 부르키나파소, 코트디부아르, 콩고, 세네갈, 인도양의 마다가스카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 2. 차용의 형태, 품사 및 분야

다음으로 차용의 형태, 차용된 단어의 품사, 차용된 단어가 사용되는 분야를 살펴보자. 우선 차용의 형태와 관련된 사항이다. 시니피앙(signifiant)과 시니피에(signifié)의 결합과 관련하여, 차용은 세 범주로 구분이 가능하다. 시니피앙과 시니피에를 모두 차용하는 경우, 기존 시니피앙에 새로운 시니피에를 추가하는 경우, 외래 단어를 단어 대 단어로 번역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차용의 형태와 관련하여 대상이 된 120개 단어를 분석한 결과 한 단어를 제외한 119개 단어가 모두 시니피앙과 시니피에를 차용하는 첫 번째 경우에 속했다. 제외된 단어는 14세기 후기 라틴어에서 유래된 ‘calculer’이다. PR에 따르면, 이 단어는 ‘계산하다’, ‘예측하다’의 의미로 시작되었지만, 마그레브 지역 아랍어의 영향을 받아 ‘보다’, ‘주의를 기울이다’의 의미가 추가되었다.<sup>17)</sup>

어휘 차용은 언어의 모든 품사에서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분석 대상이 된 대부분의 차용어(117개)가 프랑스어에서 명사로 사용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중 10개 단어는 명사인 동시에 형용사이기도 했는데, ‘peul’, ‘vaudou’, ‘bantou’, ‘macoute’, ‘amazigh’, ‘chaoui’, ‘chleuh’, ‘tamazight’, ‘malgache’, ‘wolof’가 여기에 해당한다.<sup>18)</sup> 이들은 주로 민

16) 이집트어, 소말리어, 스와힐리어, 줄루어는 동아프리카와 남아프리카에서 주로 사용되는 언어이다.

17) 의미가 추가된 시점은 참고한 사전을 통해 알 수 없었다. 따라서 이 단어는 3절(출현 시기)의 분석에서 제외된다.

18) 명사인 동시에 형용사인 단어들은 베르베르어 기원인 경우가 많다. 10개 중, 네 단어(‘amazigh’, ‘chaoui’, ‘chleuh’, ‘tamazight’)가 베르베르어 기원이다.

족과 언어의 명칭으로 사용되어 민족성과 언어의 속성을 모두 드러낸다. 명사로 사용되지 않는 단어는 3개뿐이었다. ‘calculer’, ‘kiffer’는 동사로 사용되었으며, ‘macache’는 부사로 사용되는 단어로 확인되었다. 품사 분석을 통해 밝혀진 흥미로운 사실은 제공 언어와 수용 언어의 품사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대표적인 예로 마다가스카르어에서 차용한 단어 ‘indri’가 있다. Rey & Rey-Debove(2021:1319)에 따르면, 이 단어는 프랑스어로 여우원숭이의 일종을 가리키지만, 마다가스카르어에서는 ‘여기 있다’ 또는 ‘저기 있다’의 의미를 가진 감탄사로 기능한다.

마지막으로 단어가 사용되는 분야와 관련된 사항이다. 단어의 사용 영역을 알아보는 작업은 프랑스에서 아프리카 문화의 영향이 두드러지는 영역을 식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익하다. 본 연구에서는 자연(동물, 식물, 지리, 재료 등), 인문(언어, 민족, 예술, 역사 등), 사회(군사, 종교, 식생활, 복식 등), 보건(의학, 질병 등)의 네 범주로 사용 분야를 구분하였는데<sup>19)</sup>,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영역은 동식물의 명칭 등 47개의 단어를 포함하는 자연 분야로 전체의 39.2%를 차지하였다. 여우원숭이의 일종인 ‘maki’와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나무의 일종인 ‘iroko’를 예로 들 수 있다.<sup>20)</sup> 총 38개의 단어를 포함하는 인문학 분야 또한 비중이

19) 동사와 부사로 사용되어 범주를 확정할 수 없는 세 단어(‘calculer’, ‘kiffer’, ‘macache’)와 명사이지만 ‘조금’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어 범주를 확정할 수 없는 ‘chouïa’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20) 특히, 이 분야의 단어들은 프랑스의 동식물학자 조르주 루이 르클레르 콩트 드 뷔퐁(Georges Louis Leclerc Comte de Buffon)의 작업, 앙리 뒤베리에(Henri Duveyrier)와 같은 지리학자들의 작업에 의해 프랑스어로 유입된 경우가 많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분석 대상 단어 중, ‘suricate’는 뷔퐁의 『Histoire naturelle』(1765) 13권에서 ‘surikate’라는 철자로 처음 사용되었으며(TLFI, <http://stella.atilf.fr/Dendien/scripts/tlfiv5/advanced.exe?8;s=2673900420>; (검색일: 2024.12.31.)), ‘tassili’는 뒤베리에의 『Notes sur les Touareg et leur pays』(1863)에 등장하면서 프랑스어로 유입되었다. 특히 Rey(2019)는 지리학자들의 작업을 통해 프랑스어로 유입된 차용어를 “지리학자들의 차용어(emprunt des géographes)”라는 용어로 지칭하고 있다.

높은 편이다. 이 단어들은 민족과 언어 이름, 악기, 공예품, 춤 등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대표적인 예로는 ‘peul’, ‘djembé’, ‘tara’, ‘séga’가 있다. 사회 영역에 포함되는 단어는 전체의 20%인 27개가 있었다. 특히 해당 지역의 풍속을 반영하는 ‘acra’, ‘boubou’, ‘matabiche’ 등의 단어, 전쟁과 관련된 ‘zouave’, ‘razzia’ 등의 단어가 여기에 해당한다. 보건과 관련된 단어는 4개가 있었다. ‘Chikungunya’, ‘dengue’, ‘kwashiorkor’, ‘ouabaïne’이 여기에 속한다.

### 3. 출현 시기

출현 시기는 프랑스어에 아프리카니즘이 등장한 시기를 분석하는 것으로 단어의 출현과 당시의 정치, 경제, 사회 상황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우리는 시기를 특정할 수 없는 세 단어(‘calculer’, ‘kora’, ‘walé’)를 제외한 총 117개 단어의 출현 시기를 조사하였다. 아래의 두 그래프는 그 결과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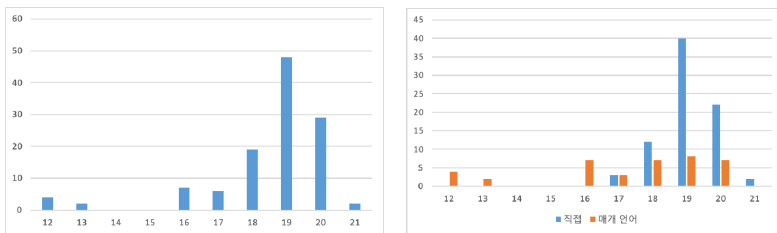


그림1. 아프리카니즘의 출현 시기

위 두 그래프는 18세기에서 20세기 사이 전체의 80%에 해당하는 아프리카니즘이 출현하였음을 보여준다. 매개 언어 없이 직접 차용된 경우 18세기에 12개, 19세기에 40개, 20세기에 22개의 단어가 출현하였는데, 이를 통해 이 시기 프랑스와 아프리카 간 직접 교류가 활발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이 기간 중 민족 집단과 언어 이름, 아프리카 지역에

서식하는 식물과 동물을 지칭하는 대부분의 단어가 프랑스어로 유입되었다. 사실, 이 시기에는 프랑스-아프리카 간 간접 교류도 눈에 띈다. 매개 언어가 있는 경우로 18세기에 7개, 19세기에 8개, 20세기에 7개 단어가 출현한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이 중 많은 단어가 아메리카 대륙과 카리브해의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크레올어를 통해 프랑스로 유입되었다. 21세기에는 ‘chikungunya’와 ‘vuvuzéla’라는 두 단어만이 프랑스어에 출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Chikungunya’는 스와힐리어에서 유래된 특정 바이러스성 질병을 말하는데, Rey(2019)에 따르면 2004년 프랑스 해외 영토인 레위니옹(Réunion)에서 해당 질병이 유행했을 때 프랑스어에 유입되었다. ‘Vuvuzéla’는 줄루족의 전통 악기로 201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린 FIFA 월드컵 기간 널리 주목을 받았다.

#### 4. 특이 사항

마지막 사항으로 사전에 특정 정보를 담은 표지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표지로는 크게 네 유형이 두드러졌다. 사용 지역의 정보를 담은 경우, 분야를 표시한 경우, 사용에 관한 정보를 표시한 경우, 사회언어학적 혹은 화용적 정보를 담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차례로 살펴본다.

우선, 사용 지역에 관한 표지이다. 표지는 대륙일 수도, 국가일 수도, 대륙도 국가도 아닌 특정 지역일 수도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Afrique subsaharienne)” 표지가 붙은 ‘matabiche’, “모로코(Maroc)” 표지가 붙은 ‘chleuh’, “알제리(Algérie)” 표지가 붙은 ‘khobz’, “마그레브(Maghreb)” 표지가 붙은 ‘amazigh’와 ‘médersa’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지역 표지는 해당 단어가 제시된 지역과 관련하여 주로 사용되며, 다른 지역에서는 일상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분야에 관한 표지이다. 분야 표지가 붙은 경우는 일상 어휘보다는 전문 용어로서의 특징을 가지는 것으로, 역사학 용어를 의미하

는 ‘HIST.’ 표지가 붙은 ‘pschent’, 동물학 용어를 의미하는 ‘ZOOLOG.’ 표지가 붙은 ‘albacore’, 식물학 용어를 의미하는 ‘BOT.’ 표지가 붙은 ‘gombo’, 지리학 용어를 의미하는 ‘GÉOGR.’ 표지가 붙은 ‘harmattan’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그 외 예술학 용어인 ‘ARTS’, 기술학 용어인 ‘TECHN.’ 표지가 붙은 경우도 발견되었다.

셋째, 단어의 사용에 대한 표지이다. 이 경우에는 단어가 현재 사용되는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VX’, ‘VIEILLI’, ‘ANCIENNT’ 표지와 관련이 있다. ‘VX’ 표지는 과거에는 사용되었지만, 현재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아 대부분의 사람이 그 의미를 알기 힘든 단어에 붙는 표지로 알제리 용병을 의미하는 ‘turco’가 여기에 해당한다. ‘VIEILLI’는 의미는 이해되지만, 현재 일상생활에서 사용되지 않는 단어를 말하며, 그 예로 ‘조금도 [...] 않다’를 의미하는 부사인 ‘macache’가 있다. ‘ANCIENNT’는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 사물을 지칭하는 단어에 붙는 표지이다. 마다가스카르에서 사용되던 가마의 한 종류인 ‘filanzane’가 대표적인 예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언어학적 혹은 화용적 정보를 담은 표지들이 있다. 우선 사회언어학적 정보와 관련하여서는 일상에서 비공식적으로 사용됨을 의미하는 ‘FAM.’과 중산층의 사용을 의미하는 ‘POP.’ 표지가 있다. 전자의 예로는 ‘커피’를 의미하는 ‘caoua’, 후자의 예로는 ‘돈’을 의미하는 ‘flouze’를 들 수 있다. 추가로 특정 직업군에서 사용되는 은어적 용어인 ‘ARG.’ 표지가 붙은 ‘bamboula’<sup>21)</sup>도 있다. 화용적 정보는 ‘PÉJ.’와 ‘FIG.’ 표지에 담겨 있다. 경멸적 의미로 사용됨을 뜻하는 ‘PÉJ.’의 예로는 인종차별적인 뉘앙스를 가진 ‘bougnoule’<sup>22)</sup>이, 비유적 의미로 확장되어 사용되는 것을 의미하는 ‘FIG.’ 표지의 예로는 ‘oasis’<sup>23)</sup>와 ‘nouba’<sup>24)</sup>등이 있다.

21) 이 단어는 북의 한 종류인 ‘tam-tam’을 의미했지만, 이 의미로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현재 은어로서 ‘아프리카 흑인’을 의미한다. 경멸적이고 인종차별적인 함축적 의미를 가진다(Rey & Rey-Debove 2021:215).

22) 이 단어는 세네갈의 백인이 현지 흑인들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인종차별적인 의미를 가진다(Rey & Rey-Debove 2021:285).

23) 사막의 오아시스를 의미하는 ‘oasis’는 ‘휴식처’, ‘안식처’라는 의미로 확장되어



## IV. 프랑스 내 아프리카 문화의 확산 양상

3장에서 우리는 프랑스어 사전 속에 등장한 아프리카니즘이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이 장에서는 앞선 결과를 토대로 ‘유입 양상’, ‘정착 양상’, ‘변형 양상’의 세 단계로 나누어 프랑스 내 아프리카 문화의 확산 양상을 유추해 보도록 한다.

### 1. 유입 양상

프랑스 내 아프리카 문화의 유입 양상은 문화 유입의 시기 및 관련 지역, 문화 유입의 원인, 문화 유입의 강도, 세 측면에서 추측이 가능하다.

우선, 문화 유입의 시기 및 관련 지역에 관한 문제이다. 프랑스 내 아프리카 문화는 프랑스의 제1식민제국 후기 및 제2식민제국 초·중기에 프랑스의 영향 아래 놓였던 지역으로부터 가장 활발하게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차용어의 출현 시기 및 차용 언어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다. 프랑스 제1식민제국은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sup>25)</sup>, 제2식민제국은 19세기부터 20세기까지<sup>26)</sup> 지속되었다. 아프리카 언어에서 프랑스어로 직접 차용된 것으로 확인된 71개 단어 중 90.1%인 64개 단어가 이 시기에 유입되었는데, 나머지 7개 단어 중에서도 출현 시기를 알 수 없는 ‘calculer’와 ‘kora’, 21세기에 출현한 ‘chikungunya’와 ‘vuvuzéla’를 제외

---

사용된다(Rey & Rey-Debove 2021:1717).

24) 음악의 한 종류를 지칭하는 ‘nouba’는 ‘축제’의 의미로 확장되어 사용된다(Rey & Rey-Debove 2021:1707).

25) 자크 카르티에(Jacques Cartier)가 캐나다 지역을 발견한 1534년부터 7년 전쟁이 종료된 1763년까지이다. 학자에 따라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제1제정이 종료된 1815년까지로 보기도 한다.

26) 프랑스가 알제리를 점령한 1830년부터 알제리가 독립한 1962년까지이다. 왕정이 복고된 1815년부터 프랑스 식민제국의 명칭이 프랑스 연합(Union française)으로 교체된 1946년까지로 보는 학자들도 있다.

한 3개 단어는 17세기에 출현한 것으로 확인된 바 대부분의 단어가 프랑스의 식민제국 시기에 유입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문화 유입 지역으로는 아랍어와 베르베르어가 사용되는 북아프리카의 모로코와 알제리, 튀니지 그리고 니제르-콩고어족의 언어들이 사용되는 서아프리카 지역이 있다. 이 지역은 모두 식민제국 시기 프랑스의 식민지, 보호령, 위임통치령으로서 프랑스의 영향을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다.<sup>27)</sup> 추가로 동아프리카와 남아프리카 지역의 닐로-사하라어족과 코이-산어족에서 유래된 단어가 거의 없다는 점도 아프리카 문화의 유입이 식민 지배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문화 유입의 원인과 관련된 사항이다. 우리는 3장의 분석을 통해 차용어들이 동식물, 지리, 악기, 민족, 언어 등 구체적인 지시 대상을 가진 경우가 많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차용어의 대부분이 명사로 사용되는 물질적 차용어로, 추상적인 것을 지칭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는데 이를 통해 프랑스에는 없는, 물리적 실체를 가진 이국적인 문화 요소들을 지칭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적에서 어휘 차용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문화에 대한 존경, 동경과 같은 상징적 기능을 수행하기보다는 필요에 의해 단어를 차용하는 것으로 보아 프랑스와 아프리카 간의 문화 교류는 피상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문화 유입의 강도에 관해 살펴보자. 단어를 발췌한 PR에 수록된 단어는 11만 개에 이른다. 그중 0.11%인 120개 단어만이 아프리카 지역 언어에서 유래했다는 것인데, 프랑스와 아프리카가 지배자와

27) 북아프리카의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가봉, 기니, 니제르, 말리, 세네갈, 베냉, 토고, 부르키나파소, 모리타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지부티, 차드, 카메룬, 코모로, 코트디부아르, 콩고, 그리고 인도양의 마다가스카르 모두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다. 이 중, 모로코와 마다가스카르는 프랑스의 보호령(pays sous protectorat), 토고와 카메룬은 위임통치령(pays sous mandat)이었다. (보호령과 위임통치령에 관해서는 프랑스 외교부 디지털 도서관 사이트 (<https://bibliotheque-numerique.diplomatie.gouv.fr/meae/fr/content/protectorats-et-mandats-francais>)(검색일: 2025.1.1.)를 참조.)

피지배자로 오랜 기간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음에도 표준 프랑스어 사전에 수록될 정도로 일정 빈도 이상의 중요성을 가진 차용어의 수가 많은 편이 아님이 놀랍다.<sup>28)</sup> 프랑스와 직접적인 관계에 놓인 적이 없었던 일본어 기원 차용어의 수가 같은 사전 내 104개에 이른다는 사실은 아프리카 언어에서 차용된 단어의 수가 얼마나 적은지 알 수 있게 한다. 직접적이고 밀접한 접촉이 있었다고 해서 더 많은 단어, 그에 담긴 문화가 유입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차용어가 가진 상징적 가치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부유한 자들로부터만 차용한다(On n'emprunte qu'aux riches)”는 샤탈 부샤르(Chantal Bouchar)의 책 제목처럼 프랑스에서 아프리카 문화가 상징적 가치를 지니지 못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한다. 120개의 아프리카니즘 중, 북아프리카의 세 지역에서 차용된 단어의 수는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 차용된 단어의 수보다 많았는데, 광활한 사하라 이남 지역에 다양한 언어와 문화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의 유입이 미미하다는 점도 인상적이다.

## 2. 정착 양상

본 연구는 일정 빈도와 중요성을 가지고 표준 프랑스어 사전에 수록된 단어만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이를 통해 정착의 양상에 대해 일반적이고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수록된 소수의 아프리카니즘 중에서도 ‘VX’, ‘VIEILLI’, ‘ANCIENNT’ 표지를 동반하고 있는 단어가 많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세 표지는 모두 단어의 현재 사용과 관련된 것으로, 일종의 유행처럼 일정 시기에만 사용되고 현재에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28) 비교를 위해 PR의 온라인 어원 검색 기능을 통해 다른 언어의 사례를 확인하였다. PR은 독일어 차용어 561개, 네덜란드어 차용어 267개, 영어 차용어 3193개(미국 영어에서 유래된 329건 포함), 스페인어 차용어 478개(아메리카 지역 스페인어에서 유래된 45건 포함)를 수록하고 있다.

그 때문에 이 경우 아프리카 문화는 프랑스 문화에 깊숙하게 정착하여 영향을 미친다고는 보기 힘들다. 하지만 우리는 보다 많은 아프리카니즘을 이민자 사회 내, 대중가요의 가사 혹은 젊은이들의 은어에서 발견한다. 말리 출신 프랑스 가수인 아야 나카무라(Aya Nakamura)의 노래 가사를 예로 들 수 있는데, 한 기사<sup>29)</sup>에 따르면 그녀의 노랫말에서는 밤바라어나 코트디부아르 지역 프랑스어 표현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일상에서 더 많은 아프리카니즘을 만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수록된 단어가 적다는 점에서 아프리카 문화는 프랑스의 주류 문화에 편입하지 못하고 한정된 사람들과만 관계된 소수 문화에, 혹은 과거 시대에 잠깐 스쳐 지나간 문화에 그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정착한 단어들 역시 ‘FAM.’이나 ‘ARG.’ 표지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알제리 아랍어에서 유래된 단어 중 19세기 알제리 용병들 사이에서 사용된 ‘용병들의 은어(argot des tirailleurs)’가 많은 수 발견된 바 있다.

### 3. 변형 양상

분석 단어 중 일상생활에 깊이 정착한 것은 거의 없지만 파생어와 합성어를 생산한 단어들이 있다. 프랑스어 규칙에 따른 신조어를 생산해 냈다는 점에서 프랑스 문화에 정착하여 프랑스 문화를 변형시키기 시작한 문화 횡단의 사례로 볼 수 있다. 분석 대상 단어 중, ‘balafon’, ‘matraque’, ‘razzia’, ‘safari’가 대표적 예인데, 대부분 명사에 ‘-er’를 덧붙여 1군 동사를 만들거나 사람을 의미하는 ‘-iste’를 붙여 새로운 파생어를 만들어 냈다. Rey(2019)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실로폰과 유사한 타악기를 지칭하는 ‘balafon’의 경우, ‘balafon을 연주하는 사람’의 의미를 가진

29) Corinne Mencé-Caster(2024.3.20.), 「Les textes d'Aya Nakamura représentent bien la diversité de la langue française, voici pourquoi」, 『Ouest-France』.  
<https://www.ouest-france.fr/leditiondusoir/2024-03-20/les-textes-d-aya-nakamura-representent-bien-la-diversite-de-la-langue-francaise-voici-pourquoi-56a229b9-8a90-47c1-871a-63df248d79ac> (검색일: 2024.12.31.)

명사 ‘balafonnier’ 혹은 ‘balafoniste’를 생산했다. 곤봉과 유사한 무기를 의미하는 ‘matraque’는 ‘(대상)을 matraque로 때리다’의 의미를 가진 타동사 ‘matraquer’, ‘matraque로 때리는 행위’를 의미하는 명사 ‘matraquage’, ‘matraque로 때리는 행위를 하는 사람’ 혹은 그와 관련된 속성을 뜻하는 명사이자 형용사인 ‘matraqueur(euse)’를 생산했다. 약탈을 의미하는 ‘razzia’는 타동사 ‘razzier’, ‘야생 동물을 사냥하러 떠나는 탐험’을 뜻하는 ‘safari’는 자동사 ‘safariiser’, 명사 ‘safariiste’, 형용사 ‘safarien(ne)’과 합성어 ‘safari-photo’를 생산했다. 이 중 ‘matraquer’, ‘matraquage’, ‘matraqueur(euse)’, ‘razzier’, ‘safari-photo’는 PR에도 수록되어 있다.

## V. 결론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아프리카니즘을 분석하여 프랑스 내 아프리카 문화 확산의 양상을 이해해 보려는 목적을 가진 본 연구를 통해 우리는 아프리카의 문화가 프랑스 문화에 깊은 영향을 주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임을 알게 되었다. 아프리카 문화는 식민 지배를 통해 프랑스 문화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점에서 프랑스어를 우세한 언어로, 아프리카의 언어들을 우세하지 않은 언어로 상정하고 우세하지 않은 언어를 제공 언어로 하는 언어 차용 이론을 수립하고자 했던 Bitjaa Kody(2000:263)의 말을 눈여겨볼 만하다.

피지배 언어의 경계를 쉽게 넘는 상층 언어와는 달리, 하층 언어가 지배 언어에 정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위 언어가 차용되는 것을 저해하는 수많은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위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본 연구에서는 미처 밝히지 못했지만, 아프리카 문화가 프랑스 문화 내 확산하는 것을 저해하는 보

다 실제적이고 근본적인 이유가 존재할 수 있다. 아프리카의 많은 지역에 존재하는 다언어주의(multilingualism), 프랑스의 식민 지배로 인해 생겨난 양층 언어 현상(diglossia), 지역 프랑스어를 포함하는 다층적 프랑스어 변이어들의 공존은 아프리카 문화가 프랑스 문화로 유입하는 것을 가로막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 문화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것처럼, 외면받던 문화가 주목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비록 본 연구는 PR에 수록된 어휘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프랑스 내 아프리카 문화 전파의 일부 양상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지만, 이 연구를 출발점으로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비주류 문화가 주류 문화에 유입되는 기제를 밝히는 일은 매우 흥미로울 것이다.

## ■ 참고문헌

- Burke, P. 지음, 강상우 옮김(2024), 『문화 혼종성』(2쇄), 이음.
- Bitjaa Kody, Z. D.(2000), “Théorie de l’emprunt à une langue minoritaire : le cas des emprunts du français aux langues africaines”, in *Contacts de langues et identités culturelles* ed. by Danièle Latin and Claude Poirier, Québec: Les Presses de l’Université Laval, 259-268.
- Bonvini, E. et al.(2011), *Dictionnaire des langues*, Paris: PUF.
- Bouchard, C.(1999), *On n’emprunte qu’aux riches*, Montréal: Éditions Fides.
- Brunot, F.(1899), *Précis de grammaire historique de la langue française*, Paris: Masson et Cie.
- Deroy, L.(1956), *L’emprunt linguistique*, Paris: Les Belles Lettres.
- Higa, M.(1979), “Sociolinguistic Aspects of Word-Borrowing”, in *Sociolinguistic Studies in Language Contact : Methods and Cases* ed. by William Mackey and Jacob Ornstein, Berlin: Walter De Gruyter, 277-292.
- Hockett, C.(1958), *A Course in Modern Linguistics*, New Delhi: Oxford & IBH Publishing Co.
- Loubier, C.(2011), *De l’usage de l’emprunt linguistique*, Québec: Office québécois de la langue française.
- Mboli, J-C.(2010), *Origine des langues africaines*, Paris: L’Harmattan.
- Rey, A.(2019), *Dictionnaire historique de la langue française*, Paris: Dictionnaires Le Robert.
- Rey, A & J. Rey-Debove(2021), *Le Petit Robert de la langue française*, Paris: Dictionnaires Le Robert.
- Walter, H.(2005), “Le latin des naturalistes, source d’un bilinguisme bien particulier”, *La Linguistique* 41, 121-128.
- Walter, H & G. Walter(2009), *Dictionnaire des mots d’origine étrangère*,

Paris: Larousse.

Corinne Mencé-Caster(2024.3.20.), 「Les textes d'Aya Nakamura représentent bien la diversité de la langue française, voici pourquoi」, 『Ouest-France』. <https://www.ouest-france.fr/leditiondusoir/2024-03-20/les-textes-d-aya-nakamura-representent-bien-la-diversite-de-la-langue-francaise-voici-pourquoi-56a229b9-8a90-47c1-871a-63df248d79ac> (검색일: 2024.12.31.)

*Le Petit Robert de la langue française* (online version),

<https://petitrobert.lerobert.com> (검색일: 2024.12.1.-2025.1.9.)

*Trésor de la langue française informatisé*, <http://atilf.atilf.fr/> (검색일: 2024.12.1.-2025.1.9.)



❖ ABSTRACT

Africanisms in French Dictionary:  
Analysis of African Cultural Diffusion Patterns in  
France

Kim, Minchai  
Kyung Hee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ow African culture was introduced, disseminated, and transformed within French culture by analyzing Africanisms, loanwords of African origin, included in French dictionaries. To achieve this, we utilized the etymological search function of an online version of the French dictionary, *Le Petit Robert de la langue française*, to extract loanwords of African origin. Extracted words were quantitatively analyzed based on four criteria: ‘introduction process and donor language’, ‘category, part of speech, and field of borrowing’, ‘period of appearance’, and ‘specific marker in a dictionary’. Based on our analysis results, we inferred patterns of African cultural diffusion in France by dividing them into three stages: ‘introduction patterns’, ‘settlement patterns’, and ‘transformation patterns’. Through this series of tasks, it was confirmed that it was a rare occurrence for African culture actively introduced from regions under French influence during the late First Colonial Empire and the early to mid Second Colonial Empire to deeply impact French culture.

Keywords: French dictionary, language contact, loanword, lexical borrowing,  
Africanism, France, Africa, cultural diffusion

- 논문투고일 : 2025. 01. 10
- 심사완료일 : 2025. 02. 02
- 게재확정일 : 2025. 02. 07